

산간지역 동제축문 분석 (山間地域 洞祭祝文 分析)

-경기·강원·충북·충남지역을 중심으로-
(京畿·江原·忠北·忠南地域을 中心으로)

宋 珉 宣
(文化財研究所 學藝研究士)

- | | |
|-----------------|--------------------|
| 1. 들어가는 말 | 3.2 祈願 |
| 2. 祝文의 概念과 形式 | 3.3 祭需 |
| 2.1 祝文의 概念 | 4. 山間地域 洞祭祝文의 意味 |
| 2.2 祝文의 形式과 內容 | 4.1 『百禮祝輯』에 나타난 祝文 |
| 3. 山間地域 洞祭祝文 分析 | 4.2 祝文製作者의 性向 |
| 3.1 祭神·頌神 | 5. 맺음말 |

1. 들어가는 말

문화재연구소 예능민속연구실에서는 1991년부터 1992년까지 2개년동안 경기·강원·충북·충남의 산간지역에서 제향되고 있는 마을공동제의를 집중조사하였다. 마을공동제의인 동제(洞祭)는 제반 마을상황속에서 마을민의 카타르시스를 이끌어내던 것으로, 그의례는 일반적으로 제물진설(祭物進設)-초헌(初獻)·아헌(亞獻)·종헌(終獻)-독축(讀祝)-소지(燒紙)-음복(陰伏)-제의비용결산(祭儀費用決算)이라는 절차(節次)로 진행된다. 이 제의과정 중 독축(讀祝)은 소지(燒紙)와 더불어 마을민의 기원(祈願), 갈구(渴求), 소망(所望)을 담아내는 중요한 틀이 된다.

이러한 축문에 대한 연구는 그다지 많은 편이 아니다.¹⁾ 기존 연구는 동제(洞祭)축문의 형식과 내용을 분석하여 축문의 문체(文體)가 『시경(詩經)』의 송체(訟體)와 유사함을 파악하였고, 조선총독부조사자료 제44집 『부락제(部落祭)』를 근간으로 동제축문이 어떤 신을 대상으로 했으며 그 신에게 무엇을 기구(祈求)하였는지를 밝혀 내려 하였다.

1) 崔承洵, 1976, 洞祭 祝文의 形式考 『韓國民俗學』 9, 민속학회
崔承洵, 1986, 洞祭 祝文의 內容考 『月山 任東權博士 頌壽記念論文集』, 集文堂
表仁桂, 1989, 『全南 村祭의 祝文研究』, 全南大學校 碩士學位請求論文
表仁桂, 1991, 全南 村祭의 祝文에 나타난 祭神考, 『韓國民俗學』 24, 민속학회

또 특별히 전남지역을 중심으로 축문의 개념과 기능을 설명하고, 제향(祭享)의 대상신 및 신의 이동을 도출해냄으로써 제신의 성격, 신앙과정을 밝히고 나아가 동제를 지내는 목적을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산간지역을 중심으로 마을공동제의가 조사된 예는 문화재연구소의 경우 뿐이고, 그 축문 또한 연구된 바 없으므로 여기에서 경기·강원·충북·충남지역의 마을공동제의 조사시 수집된 각종 축문을 분석하여 동제축문(洞祭祝文)이 동제(洞祭)에서 가지는 의미와 중요성을 살펴 보고자 한다.

우선 축문의 개념과 형식을 정리한 후 조사지역 동제(洞祭)축문에 대한 분석 그리고 동제(洞祭) 축문의 의미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여기에 활용된 축문은 경기·강원·충북·충남의 조사지역 총56개 지역 중 축문이 있는 42개 지역을 대상으로 하였다.²⁾

2. 축문(祝文)의 개념(概念)과 형식(形式)

2.1 축문(祝文)의 개념(概念)

신(神)을 향해 기구(祈求)하는 축문(祝文)·제문(祭文)·축언(祝言)·고사(告辭)·축사(祝辭)·축원(祝願)³⁾ 중 그 기구대상과 내용이 가장 명확한 것은 축문(祝文)이다.

축(祝)이란 (A)에서 보는 것처럼 제주(祭主)가 희생(犧牲)과 제주(祭酒)를 준비하여 신(神)에게 오품풍양(五穀豐穰)과 가정안락(家庭安樂)을 기복(祈福)하는 말이다.

A. 『설문(說文)』	祝祭主贊辭者 ⁴⁾ (축제주찬사자)
『시경(詩經)』 「소아편」	工祝致告 ⁵⁾ (공축치고)
『정자통(正字通)』	祝贊主人饗神者(축찬주인향신자)
『사기(史記)』 「滑稽傳」	操一豚蹄酒一盂. 而祝曰… 五穀蕃熟. 穰穰滿家 (조일돈제주일우. 이축왈… 오품번숙. 양양만가)
『사원(辭源)』	以言告神爲主人祈福者. 凡頌禱人. 亦曰祝 (이언고신위주인기복자. 범송도인. 역왈축)

그리고 (B)에서처럼 향신지사(饗神之辭)로 天地山川社稷宗廟五祀群神(천지산천사직중묘오사군신)에게 축원(祝願)을 드리는 것이다.

B. 『후한서(後漢書)』 「광무기(光武記)」	其祝文曰. 皇天上帝(기축문왈. 황천상제)
『문체명변(文體明辯)』	按祝文者. 饗神之辭也… 考其大旨. 實之六焉. 一曰告. (안축문자. 향신지사야… 고기대지. 실지육언. 일왈고) 二曰修. 三曰祈. 四曰報. 五曰辟. 六曰謁. 用以饗天地

2) 本文 3項에 해당 지역명을 나열해 놓았다.

3) 祝言 : 축하하거나 축복하는 말
告辭 : 의식 때에 글로 써서 권고하고 훈시하는 말
祝辭 : 祭時致禱之文. 近世則凡以吉語頌人之文辭. 亦稱祝辭
『漢和大辭典』 10283~10284쪽
祝願 : 바라는 바를 아뢰고 그 성취를 비는 일

4) 『漢和大辭典』 10283~10284쪽

5) 『辭海』 示部 祝 2112쪽

(이알수. 삼알기. 사알보. 오알벽. 육알갈. 용이향천지)
 山川社稷宗廟五祀群神. 而總謂之祝文. 其詞有散文
 (산천사직종묘오사군신. 이총위지축문. 기사유산문)
 有韻語. 今竝採而列之
 (유운어. 금병채이열지).

그래서 축문(祝文)은 그 의미상 제신(祭神)의 의미보다는 향신(饗神)의 의미가 강하다.

제(祭)는 ‘제사야(祭祀也)’라 하여 ‘제선조(祭先祖)’하고 ‘소이추양계효(所以追養繼孝)’한다는 의미와 ‘제야(祭也)’라 하여 ‘인신상접(人神相接)’하다는 의미가 있으며, 제문(祭文)은 ‘애통사망(哀痛死亡)·기도우석(祈禱雨□)·간구복강(干求福降)·구축사매(驅逐邪魅)’를 위해 제사(祭祀)지낼 때 읽는 글을 뜻한다.

여기에서 제사 때 쓰는 제문(祭文)과 향신(饗神)의 의미인 축문(祝文)에는 미묘한 의미상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축문(祝文)은 신을 찬양하고 신에게 인간의 희구(希求)를 기원하는 내용을 주축으로 하는 반면 제문(祭文)은 죽은 사람에게 고(告)하는 글이라 하겠다.⁶⁾ 이것은 (C)에서도 엿볼 수 있다.

C. 『文體明辯』 축문(祝文) -按祭文. 祭奠親友辭. 古之祭祀. 止告饗耳. 中世以還. 兼讚言行
 (안제문. 제전친우사. 고지제사. 지고향이. 중세이환. 겸찬언행
 以寓哀傷之意. 蓋祝文之變也. 其辭有散文. 有韻語. 有儷語
 이우애상지의. 개축문지변야. 기사유산문. 유운어. 유려어)

축문(祝文)은 (B)에서처럼 ‘향신지사(饗神之辭). 고수기보벽알(告修祈報辟謁)’이고 제문(祭文) (C)에서처럼 ‘奠親友辭. 兼讚言行以寓哀傷之意(전친우사. 겸찬언행이우애상지의)’이다. 한편 축문(祝文)과 제문(祭文)에는 ‘其辭有散文. 有韻語(기사유산문. 유운어)’라는 형식상의 공통점이 있으며 글 발생의 선후가 있다. 제문(祭文)은 제사때 음식을 차리고 알리는 글이었는데 중세이후로 언행을 찬양하고 애상하는 뜻이 더해지게 된다. 그런데 이 모두는 축문이 변한 것이다.

2.2 축문(祝文)의 형식(形式)과 내용(內容)

제신(祭神) 또는 향신(饗神)의 의미를 지닌 축문(祝文)은 고려시대(高麗時代)이래 수많은 문헌 속에 보여지고 있다. 현재 전승되고 있는 (D)와 같은 축문의 형식은 『주자가례(朱子家禮)』가 도입되면서부터 일정한 형식들을 갖춘 것으로 보인다.

D. 서두(序頭) 維歲次(干支)某月(干支)朔某日 干支 000 敢昭告于
 (유세차(간지)모월(간지)삭모일 간지 000 감소고우)
 본문(本文)
 말미(末尾) 상향(尙饗)

6) 表仁柱, 1989, 『全南祝祭의 祝文研究』, 全南大學校 碩士學位請求論文, 15~19쪽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가례(家禮)의 제례(祭禮)속에서 제문(祭文)의 형식(形式)으로 먼저 이루어진 것으로 공동체내 제의(祭儀)의 축문(祝文) 형식으로 보편화된 것은 아마 조선 후기 유학자 이재(李穡)의 『四禮便覽』(1844) 제작과 더불어 나타난 것이라고 추정된다.

이 점은 동제(洞祭)의 축문형식(祝文形式)이 사대부(士大夫) 가례(家禮)의 축문형식(祝文形式)으로부터 전파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 준다. 향촌사회의 동제(洞祭)는 마을민 모두의 바램을 담고 있는 공동의 기원체(祈願體)로서 동제에서 축문이 형식화되었다는 것은 가례의 제의절차 유입과 더불어 주자학적 가치체계가 지배논리로서 도입된 일면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이것은 수많은 유학자의 문집류에서 제공된 제문(祭文)·축문(祝文)이 어떤 일정한 시대에 이르러 (D)와 같이 형식을 유지하게 되고 이것이 점차 민에게까지 파급되어 동제의 축문에서도 그 형식이 등장하게 된 것이라 하겠다. 유학자의 축문형식상황을 보면 (E)와 같다.

E. 서두(序頭)-말미식(末尾式) 축문소수현황(祝文所收現況)⁷⁾

학자명	문집명	축문·제문	서식여부	시대
변계량 외	동문서	축문·제문	X	고려
권근	양촌집	제문	X	1421
이황	퇴계선생문집	축문·제문	O	1545~1566
송시열	송자대전	축문·제문	O	1637~1689
허목	미수기언	제문	X	1674
이형상	병와집	축문·제문	X	1716
최익현	면암집	제문	O	1891~1902

(E)에서 보는 것처럼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인 이황의 『退溪先生文集』에서도 서두-말미서식의 제문·축문이 보이고 있다. 이것은 주자가례가 도입된 후 중종대에 이르러 서야 비로서 상례(喪禮)가 시행되었다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제례(祭禮) 역시 이때 수용되었으리라 추정된다. 이황의 축문(祝文)·제문(祭文)의 경우(F-1)은 가뭄·기근·장마·겨울가뭄 등에 대한 걱정을 해소해주시기를 기원하는 기원문으로 농본국가의 최대질염들인 자연재해에 대한 소극적인 대응의 한 방법이라 하겠다.

F-1. 기원문(祈願文)(기우문(祈雨文)·기설문(祈雪文)·기청문(祈請文)) : 제신(祭神)에게 기원하는 글

예 風雲雷雨壇祈雨文(풍운뢰우단기우문)

F-2. 위안문(慰安文) : 역대(歷代) 선왕(先王)이나 관사(官舍) 등에 대한 위안(慰安)의 글

예 景福宮災慰安宗廟文(경복궁재위안종묘문)

F-3. 고유문(告由文) : 건물(建物)의 준공(竣工), 가묘(家廟)에 천신(薦新)함을 고유(告由)함.

예 景福宮重新祭告昭殿文 (경복궁중신제고소전문)

7) 현황의 연도는 축문과 제문이 서식형태로 수록되었을 경우는 그 연도를, 서식형태가 아닌 축문과 제문이 수록되었을 경우는 문집연도를 썼다. 그리고 동문서에는 이담(1370~1405), 변계량(1319~1430), 김극기(고려 명종대, 생물년미상), 이규보(1168~1241), 윤회(1380~1436)의 축문과 제문이 실렸는데 이들은 12세기부터 15세기까지 살다간 인물들로 주로 고려때 활동하여서 시대를 고려로 잡았다.

F-4. 제 문(祭文) : 유학자(儒學者)·친지(親知)·문인(門人)·제자(弟子) 등에 대한 제향(祭享)의 글

예 白雲洞書院祭安文成公文(백운동서원제안문성공문)

한편 동제의 경우 서식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유가(儒家)의 서두(序頭)-말미식(末尾式) 축문(祝文)을 대종(大宗)으로 하고 있으나 문체상 제가적(祭家的) 성격의 시경(詩經) 송체(訟體)의 문체인 사언체(四言體)를 모방하였다고 보여진다.⁸⁾ 시경(詩經) 송체(訟體)는 (G)와 같이 사언체(四言體)로 되어 있는데 동제 축문의 경우 역시 신을 송축(頌祝)하고 바라는 바를 신에게 기구(祈求)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시경(詩經) 송체(訟體)와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G. 열조(烈祖)⁹⁾

차차열조여(差差烈祖)	아아 공덕(功德)이 있으신 조상
유질사호로다(有秩斯祐로다)	그 복록 변함 없으셔라
신석무강이라(申錫無疆이라)	거듭 끝없이 내려주셔
급이사소로다(及爾斯所로다)	당신의 이 땅에 이르렀어라
기재청고하니(既載淸醕하니)	맑은 술 차려 올려
뇌아사성이며(賚我思成이며)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기 빌고
역유화갱하니(亦有和羹하니)	양념한 국도 받쳐
기계기평이로다(既戒既平이로다)	고루고루 맛을 갖췄다
종가무언하며(醜假無言하며)	신령의 강림을 말없이 빌고
시미유쟁하니(時靡有爭하니)	시국도 다투는 일 없어
수아미수하여(綏我眉壽하여)	우리에게 수복(壽福)을 내려 주시어
황구무강이로다(黃耇無疆이로다)	늙도록 만수무강하여라
약저착형이며(約軋錯衡이며)	문채 화려하게 꾸민 수레
팔관창창하여(八鸞鶻鶻하여)	여덟 방울 딸랑거리며 와서
이가이향하니(以假以享하니)	신령의 강림 빌며 제사올려
아수명부장이로다(我受命溥將이로다)	우리가 받은 천명 넓고 커라
자천강강하사(自天降康하사)	하늘에서 강녕(康寧)을 내리시어
풍년양양하니(豐年穰穰하니)	풍성한 풍년
내가내향하여(來假來饗하여)	신령께서 강림하사 음향(音響)하시어
강복무강이로다(降福無疆이로다)	내리신 복록 끝이 없어라
고여증상하니(顧予蒸嘗하니)	우리 겨울제사 가을제사 돌보아
탕손지장이로다(湯孫之將이로다)	탕왕의 후손 제사 받는다.

이것은 동제축문(洞祭祝文)이 가제축문(家祭祝文)과 서식상 서두(序頭)-말미식(末尾式)으로 동일하나 구조상 서회(敍懷)의 의미를 지닌 가제축문(家祭祝文)에 비해 송(頌)

8) 崔承洵, 1986, 洞祭 祝文의 內容考, 『月山 任東權博士 頌壽記念論文集』, 集文堂, 58쪽

9) 『詩經』 「頌編」 商頌 烈祖
張基權·李家源 外 譯, 1989, 『詩經』, 平凡社, 824~825쪽

과 기복(祈福)의 이중구조를 지닌 것을 보여준다. 이는 현재 혼용되는 축문(祝文)과 제문(祭文)의 개념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예로 축문(祝文)은 제문(祭文)에 비해 신(神)을 찬양(讚揚)하고 동시에 인간이 바라는 것을 신(神)에게 기원(祈願)하는 글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축문(祝文)은 천상(天上)과 지상(地上)의 세계에 있는 신(神)과 인간(人間)이 서로 교접(交接)할 수 있게끔하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 결국 가제축문(家祭祝文)은 죽은 사람의 언행을 찬양하고 애통해함을 고하는 의미인 제문(祭文)과 일맥상통하여 그 서식은 『주자가례(朱子家禮)』 수입이후 서두-말미식으로 정립되어 갔고, 이것은 축문 제작(祝文製作)에 관여한 마을 유학자들에 의해 동제축문(洞祭祝文)에서도 그 서식이 이용되었음을 보여준다.

서식상 동제축문(洞祭祝文)은 가제축문(家祭祝文)과 유사성을 보이지만 그 내용상으로는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동제축문(洞祭祝文)은 신위(神位)의 성질이나 지역의 습속(習俗) 등에 따라 축문내용이 구구한데 보통 농사대풍(農事大豐)·풍어(豐漁)·생업(生業)이 풍요롭게 되기를 기원하거나 가축번식(家畜繁殖)·자손번창(子孫繁昌)·동네평안(平安)·재앙(災殃)과 질병(疾病)의 퇴치(退治) 등을 기원한다. 이러한 내용은 동제(洞祭) 제의절차(祭儀節次) 진행과정(進行過程)중 제의행사(祭儀行事)의 일환인 축문(祝文)으로 독축(讀祝)되는데 이 독축(讀祝)에서 동제(洞祭)를 행하는 목적이 밝혀지게 된다.

동제의 제의절차(祭儀節次)는 보통 제물진설(祭物進設)-강신(降神)-헌잔(獻盞)-독축(讀祝)-소지(燒紙)-음복(飲福)-철상(撤床)¹⁰⁾ 순으로 나타난다. 축문(祝文)의 내용은 가제(家祭)의 경우 ‘언제-누가(단수)-누구에게-무슨일로-무엇을 하니-어떻게 하십시오’가 줄거리이다. 반면에 동제(洞祭)의 경우는 ‘언제-누가(단수 혹은 복수)-누구에게-무슨일로-무엇을 하니-어떻게 해주시기 바랍니다’의 줄거리를 갖는다.¹¹⁾ 제사를 드리는 절차중 제사의 목적과 기원내용이 나타나는 예가 독축(讀祝)과 소지(燒紙) 과정인데 동제(洞祭)의 경우 ‘독축(讀祝)’에서 읽어드는 축문(祝文)은 마을 공동의 바램이, 그리고 소지(燒紙)하면서 말해지는 축언(祝言)에서는 (H)에서처럼 마을 공동의 바램(대동소지(大同燒紙))에서부터 각 개인의 바램을 담은 개인소지, 우마소지(가축소지(家畜燒紙))에 이르기까지 기원된다.

H. <도소지>¹²⁾

미련한 소인간은 우로 마치로운 밤에 잠을 자고
민막은 슬증에다 과식을 지어 소실로 떠서 못사와주니와

10) 忌祭祀의 祭儀節次 : 齊戒-設位·陳器-修祝-滌器·具饌-變服就位-設蔬果酒饌-神位奉安-焚香-降神-參神-進饌-初獻, 讀祝-亞獻-終獻-侑食-闔門-啓門-進茶-辭神-納主·焚祝-撤饌-飲福
김득우, 1988, 『알기쉽게 풀이한 우리의 전통예절』, 한국문화재보호협회, 303~311쪽에 현대화된 기제사의 제의 진행절차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았다.

洞祭의 祭儀節次 : 분향-강신제배-일동참신-초헌-개반지-아헌-중헌-침작-삼시-진수요반-철시-일동제배-소지축
文化財管理局 文化財研究所, 1993, 『산간신앙』, 124쪽, 경기도 안성군 이죽면 칠장리(산직) 산제의 제의진행절차이다. 예전에는 초헌 후 독축이 있었으나 현재는 생략되고 없다. 약 20년전부터 축문을 읽을 만한 사람이 없어 자연스레 없어졌다.

11) 家祭祝文 : 혈연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 특정씨족의 가정제의축문을 일컬음
禮祭, 吉祭, 祠堂祭, 四時祭, 禰祭, 忌祭, 墓祭 등
洞祭祝文 : 혈연적 관계가 아닌 지연적 관계로 생긴 마을중심의 공동체제의의 축문

12) 文化財管理局 文化財研究所, 1993, 『산간신앙』, 40~44쪽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가야2리 부대안 마을의 산신제에서 無祝 祝言한 후 읽은 소지축언이다. 도소지(대동소지)-도가소지-유가소지-개인소지순으로 하는데 대동소지인 도소지와 도가소지의 내용은 각기 다르고 유가소지 이후로는 축언의 내용이 비슷하다.

들을 가려내지 못하고 모든 것이 유소 인간이옵고
소지 한 장을 나가리고 바깥일을 내다보지 못하는 것이
인수인간이오라.

여러 산신님 전에 오시며는 오신다~~~못사옵고
가신다면 가신 자취가 바위바위 등에 없사와서
소지 일장으로 알고자 하옵나니
여러 산신님 전에 금일 이 치성을
즐겁하고 흠향감동 감결하고 흠향감동하셨다 하시건든
소지 일장이 맑게 맑게 타 하늘 등천 하옵시고
만일 그렇지 못하다 허시거든 흐린 끝이 자락을 뚜렷이 내어
길흉판단을 가려 주시옵소서
~관세음

<도가소지>

이 소지 일장은 다른 소지가 아니옵니다
금일 이 치성을 올리려고 도가를 뽑아서
금일 이 치성을 올려 사옵는데
~누가 도가요?~
누춘봉이라 하옵니다.
누춘봉이라 하옵니다.
금년 신수를 곱게 나옵실적에
일년이면 열두달 과년이면 열석달
삼백육십오일 하후같이 지나가소서
안과태평 무병공로로 접지를 시켜 주신다면
소지 일장이 맑게맑게 타 하늘 등천 하옵시고
그렇지 못하다 허시거든 흐린 끝이 자락을 뚜렷이 내어
길흉판단을 가려 주시옵소서
~관세음

<개인소지>

이 소지 일장은 다른 소지가 아니고
000씨 옵니다.
일년이면 열두달 과년이면 열석달
삼백육십오일 하루같이 지나가소서
안과태평 무병공로로 접지를 시켜 주신다면
소지 일장이 맑게 맑게 타 하늘 등천을 하옵소서

그러므로 동제(洞祭)축문은 마을 공동의 기원대상이 명확하게 표현된 것인데 동제(洞祭) 축문(祝文)의 기본서식인 (D)와 유사하다는 사실을 앞서 밝혔다. 그러나 동제(洞祭) 축문(祝文)의 복문은 가제축문과 달리 제신(祭神)-송신(頌神)-기원(祈願)-제수(祭需)의 기본요소를 담고 있다. 제신(祭神)은 보통 제향할 신의 이름을 명하는 것이다. 송신(頌神)은 신의 위대함이나 마을민에게 도움을 주는 것에 감사하며 마을민의 신에 대한 경외심을 보여준다. 보편적인 축문(祝文)은 이 송신(頌神)과 기원(祈願)부분에 집중적으로

할애되고 있다. 신원에서는 모든 마을민의 삶의 요소요소에 원하는 바 즉 풍요로운 경제나 외래세력으로부터의 방어(防禦), 동네 가가호호(家家戶戶)의 안택(安宅)과 기원하는 바의 수용(受容)등이 제시된다. 이러한 마을민의 기원은 곧바로 동제(洞祭)의 사회적 기능, 신앙적인 의의, 문화적인 가치를 구명하는데 지름길을 제공해준다.

3. 산간지역 동제축문 분석(山間地域 洞祭祝文 分析)

축문(祝文)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동제(洞祭)를 지내는 목적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동제(洞祭)를 진행하는 절차 중 독축(讀祝)하는 의미의 심장함을 나타내주는 것이기도 하다. 특히 기원의 내용을 지역별로 분류하여 보면 각 지역의 주산업 내지 사회적 특성을 살펴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산간지역을 그 대상으로 한다. 그래서 동제(洞祭)의 내용을 파악하면 산간지역의 지역적 특수성을 파악할 수 있고 나아가 동제(洞祭)의 특수성을 유추할 수가 있다. 또 동제(洞祭)축문(祝文)의 기원내용을 파악하면 사회·경제적 환경을 파악하여 마을의 환경을 유추해볼 수도 있다. 그리고 동제(洞祭)는 지역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의 특성에 맞게 거행하는 제의행사이며 동제(洞祭) 축문(祝文)은 공동체의 제의 목적이 담겨져 있는 기원문이라는 점을 보다 명확히 할 수가 있다.

여기서는 『산간신앙』 조사보고서에 실린 42건을 축문(祝文)내용분석의 대상으로 삼는다. 그리고 각 항의 고유번호로 대상을 구분한다.¹³⁾

- I-1. 강원도 평창군 대화면 상안미3리(미날)
- I-2. 평창군 진부면 호명리(범우골)
- I-3. 횡성군 강림면 강림2리(노고소)
- I-4. 횡성군 강림면 강림5리(창말)
- I-5. 인제군 기린면 현6리(서바수)
- I-6. 인제군 북면 용대1리(아랫남교)
- I-7. 명주군 왕산면 도마2리(탑동)
- I-8. 명주군 옥계면 도직리(연어골)
- I-9. 삼척군 각고면 당곡리(대촌)
- I-10. 삼척군 미로면 하거노1리(둔점)
- I-11.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금대리(비령대)
- I-12. 파주군 범원읍 삼방리(둔방)
- I-13. 파주군 광탄면 방축1리(검전)
- I-14. 파주군 금촌읍 검산리(장골)
- I-15. 화성군 동탄면 오산2리
- I-16. 안성군 금광면 사흥1리(석암)
- I-17. 광주군 초원면 신월리(두월)
- I-18. 포천군 군내면 명산리(화촌)
- I-19. 양주군 회천읍 회정리(셋골)
- I-20. 양주군 장흥면 부곡리(장골)

13) 文化財管理局 文化財研究所,1993,앞의 책 참조

- I-21. 연천군 전곡면 양원리(동편말)
- I-22. 연천군 백학면 전동리
- I-23. 충청북도 옥천군 안남면 도덕1리(서당골)
- I-24. 옥천군 군북면 향곡리(향골)
- I-25. 괴산군 청천면 고성리(성암)
- I-26. 괴산군 소수면 소암리(소바우)
- I-27. 제천군 청풍면 도화리(도화본동)
- I-28. 제천군 덕산면 역수리(양지말)
- I-29. 제천군 한수면 송계리(창말,벌들)
- I-30. 단양군 가곡면 향산리(면위곡)
- I-31. 단양군 대강면 용부원3리(매바우)
- I-32. 단양군 단성면 가산2리(상선암)
- I-33. 진천군 백곡면 양백리(상백)
- I-34. 음성군 생극면 생리2구(안터)
- I-35. 충청남도 공주군 유구면 구계2리(산막)
- I-36. 청양군 대치면 장곡리(장곡)
- I-37. 연기군 전동면 석곡리(돌곶이)
- I-38. 부여군 외산면 만수리(동구)
- I-39. 부여군 은산면 금공리(금갱이)
- I-40. 논산군 상월면 대명2구(떠을)
- I-41. 보령군 청라면 나원2리(월치)
- I-42. 보령군 성주면 개화리(조계동)

축문(祝文)의 내용은 제신, 송신(送神), 기원, 제수를 기본으로 한다. 이것은 축문(祝文)의 기본틀이 동제(洞祭)가 어떤 신을 대상으로 하여 그 신에게 무엇을 기구(祈求)하였느냐하는 문제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신(祭神)은 제사의 대상에 따라 다르기도 하고 이 제신(祭神)의 성격에 따라 동제(洞祭)의 성격이 달라지기도 한다. 송신(頌神)은 신에 대한 칭송의 말로서 신이 강림하도록 신의 영험함을 노래하면서 신에 대한 마을주민들의 경외함이나 그 행위 등을 보여준다. 기원(祈願)은 제의를 지내는 목적으로 마을민의 공동으로 회구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축문(祝文)내용중 최고의 핵이라 볼 수 있다. 보통 동제(洞祭)를 상원(정월보름)에 지낸다고 보았을 때 정초에는 가제(家祭)를 지내며 조상의 음덕을 찬양하고 정월 보름에는 동제(洞祭)를 지내며 마을수호신에게 마을의 안위와 가호를 빌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들 축문(祝文)에 있어서 제신(祭神), 송신(頌神), 제수(祭需)의 내용이 생략될 수는 있어도 기원(祈願)의 내용은 절대 생략된 예가 없다. 기원의 내용¹⁴⁾은 신앙적으로는 기구(祈求)이겠으나 현실적으로는 마을민의 간절한 바램이며 생활의식의 공통점이다.

3.1 제신(祭神) · 송신(頌神)

14) 表仁柱,1989,앞의 책,42쪽

동제(洞祭)에서 제신(祭神)은 축문(祝文) 서두에 쓰여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대부분 축문(祝文) 서두에서 일단 신을 호명(呼名)하기 때문이다. 산간지역은 주로 '00지신(之神)'이라는 형태가 많다. (I-10)¹⁵⁾의 '檀君大王(단군대왕)'이나 (I-38)의 '萬壽山隍大神(만수산황대신)', '五方神將(오방신장)'을 제외하면 그외는 모두 보편적인 '00지신(之神)'의 형태를 띤다. 산간지역 42개소에는 겹치는 신위명(神位名)까지 모두 합쳐 54개가 등장한다. 이중 2개의 신위명(神位名)은 6개(총 신위명(神位名)중 11.1%), 3개의 신위명(神位名)은 3개(5.5%)이고 나머지는 단수(單數)의 신위명(神位名)이다.(83.3%) 이 2개의 신위명(神位名)에는 '山川之神(산천지신)·城隍之神(성황지신)'類가 2개, '토지지신·산천지신'류가 2개인데 모두 경기-강원지역이며 두 경우 모두 축문(祝文)은 1개씩이다. 한편 '土地之神(토지지신)·里社之神(이사지신)¹⁶⁾'이 1개, '萬壽山隍大神·五方神將(만수산황대신·오방신장)'이 1개 있는데 이 경우는 충북-충남지역이며 각신마다 축문(祝文)이 각 1개씩 2개의 축문(祝文)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3개의 신위명을 가지고 있는 (I-7)과 (I-8)의 '土地之神·城隍之神·癘疫之神(토지지신·성황지신·여역지신)'과 (I-10)의 '檀君大王·土地之神·城隍之神(단군 대왕·토지지신·성황지신)'의 경우도 각 1개씩의 축문(祝文)을 갖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이로 미루어 볼 때 경기-강원은 주로 일단다신일축형(一壇多神一祝形)으로 보이고 충북-충남은 일단다신다축형(一壇多神多祝形)으로 보인다. 이 경우는 해당되는 것이 (I-41)이다. 이 경우는 '堂山國師 一壇同禋(당산국사 일단동인)'이라 하여 당산(堂山), 국사(國師)신이 일단(一壇)에서 제사냄을 명시하고 있다. 제신(祭神)은 워낙 조사지역이 산간지역이었던 까닭에 00산신(山神)이 주류를 이룬다. 제신 종류를 들면 성황지신(城隍之神)(22.2%), 00산신(山神)(33.3%), 산천지신(山川之神)(14.8%), 토지지신(土地之神)(16.6%), 기타(12.9%)로 구성되어 있다.

성황지신(城隍之神)의 경우 경기-강원지역이 충북-충남지역보다 우세하게 나타나고 반면에 산신(山神)의 경우는 충북-충남지역이 보다 우세하게 나타난다. 경기-강원지역의 경우 산신(山神)은 치악지신(雉岳之神)·무봉산지령(舞鳳山之靈)·화악지령(花嶽之靈)·일륜봉산령지신(日輪峰山靈之神) 네 경우 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산천지신(山川之神)으로 나타난다. 반면에 충북-충남지역은 보편적 산신(山神)은 '산신지전·대미대미산(大美大美山)·금공리지산신(琴公里之山神)·산신지하(山神之下)' 네 경우에 불과하고 그 나머지는 모두 마을의 고유한 산명(山名)이 붙는다. 토지지신(土地之神)의 경우도 역시 경기-강원지역이 충북-충남지역에 비해 우세한 편이다. 이렇듯 경기-강원지역이 충북-충남지역보다 산천지신(山川之神)과 토지지신(土地之神)이 우세한 이유는 강원도의 험준한 자연환경이 오히려 보편적인 산천(山川)·토지(土地)·성황(城隍)에게 기구함으로써 다른 지역에 비해 농지비율이나 호구비율이 낮은 상황을 면해보고자 하는 기원이 내재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¹⁷⁾ 이것은 충북-충남지역이 오히려 산신(山神)의 명칭이 우세하게 나타나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15) 이후 축문고유번호를 게재함. 『산간신앙』에 축문자료가 실려 있으니 참조.

16) 삼척군, 1984, 『삼척군지』, 291쪽
삼척지역 가 마을마다 설치하였고 "神明을 공경하고 향리의 화목을 꾀하고 풍속을 두터이 하여 인심을 권하는 것"이 목적이라 한다.

17) 강원도청, 1975, 『강원총람』, 1082쪽
강원도의 農地는 전국의 農地에 비해 극히 적다. 山地가 많아 戶口의 比率과 비교해 검토하면 호구는 그나마 5%를 上下하고 있는데 農土는 훨씬 적다. 그것은 당시 전국 농민의 생활이 모두 궁핍했을 터이지만 강원도민의 생활이 보다 극심했을 것을 입증하는 통계라 한다. 그러므로 강원도민의 생활을 농업 이외의 다른 방향으로 전환하여야 한다는 오늘날의 命題역시 역사속에서 배태된 운명이라 하겠다.

全國·江原 農地比較表

이외에 여역지신(癘疫之神)이 (I-7)과 (I-8)의 두 경우에서 나타난다. 이것은 당시 강원도 명주군을 휩쓴 제반 수인성 전염병이 축문(祝文) 중 기원부분에서 ‘기외불침(祈外不侵)’이나 ‘재앙소멸(災殃消滅)’등으로 표현되는 것으로 보인다. 또 (I-10)의 단군대왕(檀君大王)은 그 제의내용이 보고서에는 실리지 않았으나 유일하게 무격에 의해 제사가 주도되었던 조사지역으로 유식제사(儒式祭祀)와 무격에 의한 서낭단오굿이 함께 베풀어졌던 경우였다. 이곳에서는 유교식 제사보다는 무격에 의한 마을굿의 형태가 강하게 남아 있었다.¹⁸⁾ 그리고 (I-38),(I-39),(I-41),(I-42)에서 오방토지지신(五方土地之神), 오방신장(五方神將)이 보이는데 이것은 고려시대 이래로 그 일대에서 풍미했던 오방신장신앙(五方神將信仰)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E.B.비숍은 랜디스박사의 한국 귀신의 신보(神譜)를 인용해 한국의 귀신서열¹⁹⁾을 1. 하늘의 귀신, 2.땅의 귀신, 3.산과 언덕의 귀신, 4.용의 귀신, 5.마을과 구역을 지배하는 귀신 등 36개로 분류해 놓았다. 산간지역의 제신(祭神)이 거의 1~5항목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지극히 보편적인 전통신관(傳統神觀) 내지 신에 대한 인식태도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엿볼 수 있겠다. 이것은 신관(神觀)²⁰⁾의 차이에 의해 축문내용(祝文內容)은 물론 제신명(祭神名), 축문명(祝文名)까지도 차이가 나며, 축문(祝文)이 축문제작자의 임의성으로 인해 제신명칭(祭神名稱)이 신의 성격을 규정짓지 않는다는 의견에 대단히 회의적인 견해를 보일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하겠다. 제신(祭神)의 명칭은 동네마다 자연환경과 주민구성 등에 부합되게 선택되고 축문(祝文)을 짓은 사람들은 기원의 내용만큼이나 제신의 성격에 신경을 쓰게 됨을 감지할 수 있다. 이것은 다음 항에서 살펴 볼 『백례축집(百禮祝輯)』에 실린 각 축문(祝文)의 형식이나 내용을 통해서 부연될 예정이다.

한편 송신(頌神)은 정결한 장소, 알맞은 시간 그리고 근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신에게 기원하기까지의 준비과정을 서술한 것이다. 맹동(孟冬)(I-22), 원월상순(元月上旬)(I-23), 상원(上元)(I-24), 맹춘(孟春)(I-27)등 고래로 정한(I-8, 고유소정일) 일길진량(日吉辰良)한 날을 제삿날로 잡아 동네의 여기저기를 청결히 진압(鎮壓)(I-2, I-23, I-24, I-31등)하고 동민남녀노소(洞民男女老少)가 목욕제계(沐浴齊戒)하면(I-18) 제사는 시작된다. 제향은 백신(白身) 가운데 최고의 신령인 산신(山神)을 만물(萬物) 가운데 가

王代/事項	全國結數	江原結數	比率(%)	戶口比率 (全國/江原)	備考
初期(世宗)	1,619,257	65,916	4 强	戶 5 % 普 口 3.6% 普	元結
中期(英祖)	800,843	11,408	1.4 弱	戶 5 % 强 口 5.3% 强	實結
後期(純祖)	810,518	11,569	1.4 强	戶 4.6% 普 口 4.5% 弱	"
末期(高宗)	992,444	22,163	2.3 普	戶 5.8% 弱 口 5.1% 弱	元結과 實結 區分안됨
備考			實結일 때 比率이 弱		

비교표는 『增補文獻備考』, 『萬機要覽』, 『朝鮮王朝實錄』을 근거로 만들.

18) 김명자, 1992, 마을굿 演行樣相 考, 『文化財』 25,160~162쪽

마을단위의 서낭단오굿이 매해 정기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19) E.B.비숍, 이인화 옮김, 1994, 『한국과 그 이웃나라들』, 살림, 479~480쪽

20) 崔承洵, 1986, 앞의 논문, 72~73쪽

장 귀한 인간(人間)이(I-17, 백신지중(百神之中) 산신최령(山神最靈) 만물지중(萬物之中) 인위최귀(人爲最貴)) 구규(舊規)를 준행(遵行)하여 축사(祝辭)하므로써 진행한다. 이때에 향설(香設)·두물(豆物)하고(I-12) 형준(馨樽)에 술을 올려(I-4) 치성을 드린다. 음양(陰陽)으로 구분된 이 세상에 신(神)과 인간(人間)이 있어서 신은 사람에게 의지해 제향(祭享)을 받고 사람은 신에 의지해 도움을 받아 분연히 그 받은 바를 보은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역설한다.²¹⁾

그러므로 송신(頌神)의 내용은 제삿날을 맞이하여 모든 동민이 목욕제계하고 몸과 마음을 받쳐 온갖 지성으로 정성을 올리면 신령(神靈)의 따스한 보살핌을 입어 모든 것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²²⁾을 담아 놓은 것이다(I-34).

3.2기원(祈願)

기원은 축문(祝文)의 본문구성요소 중 핵이다. 축문(祝文)에는 기원의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는데 이는 제의진행과정 중 독축(讀祝)할 때 축문(祝文)을 통해 믿고자 하는 바를 표현했음을 뜻한다. 기원은 내용상 크게 벽사(辟邪)와 구복(求福)으로 나눌 수 있다. 이것은 한국인의 삶에 대한 갈구의식(渴求意識)의 반영²³⁾이라 할 것으로 우리의 민간신앙이 문자(文字)와 결합되어 나타난 예라 할 수 있다.

벽사(辟邪)란 여역(癘疫), 호환(虎患), 해충(害蟲), 재액(災厄), 요사(妖邪), 악귀(惡鬼), 관재(官災) 등에 대한 방지(防止)와 소멸(消滅)이 주 내용이다. 벽사(辟邪)의 방향과 심도는 지역적 특수성이나 제신(祭神)의 성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²⁴⁾ 구복(求福)은 우리나라가 농촌을 중심으로 한 농경문화였던 까닭에 마을의 태평과 농사의 풍양(豐穰)이 주된 내용으로 등장한다. 오곡풍양(五穀豐穰), 육축번식(六畜繁殖), 백자천손(百子千孫)(부귀다남(富貴多男)), 농무성공(農務成功) 등이 그 내용으로, 이는 농경문화를 기반으로 한 유가윤리(儒家倫理)의 편린을 엿볼 수 있다.

산간지역의 주요한 기원 내용은 기풍요(祈豐饒), 가축번식(家畜繁殖), 기불외침(祈不外侵), 관재불침(官災不侵), 동네평안과 무고(無告), 소원성취(所願成就), 재앙소멸(災殃消滅)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여기에서는 벽사(辟邪)의 내용인 기불외침(祈不外侵), 관재불침(官災不侵), 재앙소멸(災殃消滅)과 구복(求福)의 내용인 기풍요(祈豐饒), 가축번식(家畜繁殖), 동네 평안과 무고(無告), 소원성취(所願成就)를 살펴 보기로 한다.²⁵⁾

(가) 벽사(辟邪)

벽사(辟邪)에는 당시의 마을환경과 마을민이 간절히 희망하는 요구내용이 담겨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것은 벽사의 내용속에 나타나는 기불외침(祈不外侵), 관재불침(官災不侵), 재앙소멸(災殃消滅) 자체가 바로 마을민의 생사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기불외침(祈不外侵)의 경우 재앙소멸(災殃消滅)과 더불어 인간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

21) (I-9) 陰陽治分 有天有地 有人有神 神依于人 神依于神

(I-17) 人仰於神 神俯於人

(I-21) 神不自享 神受人享 寔相報酬 人不自助 人受神佑

22) 神靈이 도와준이 있어 비가 와야 할 때는 비를, 맑음을 구할 때는 맑게 해주고(I-19, 伏孔嘉日 雨卽雨 求晴得晴) 그 무엇도 이루지 못할 게 없다는 사실을 강조함.(I-23, 神靈所佑 何事不成)

23) 崔承洵, 1986, 앞의 논문, 72~73쪽

24) 崔承洵, 1986, 앞의 논문, 68~72쪽

25) 『산간신앙』 조사보고서에 기재된 기원의 내용별 등장횟수는 아래와 같다

내 주는 경우이다. 자연(自然)에서 비롯된 악수(惡獸)나 해충(害蟲), 사가(蛇假), 귀신(鬼神) 그리고 자연재해(自然災害), 재역(災厄)이 있고, 인간의 악한 마음에서 비롯된 도적류(盜賊類)나 병란(兵亂)이 있다. 재앙소멸(災殃消滅)은 이와는 성격이 약간 다르나 마을민에게 가장 극심한 해를 입힐 수 있는 경우인지라 여러 지역의 축문(祝文)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 경우 질병과 재앙은 한 마을을 몰살시킬 수도 있는 엄청난 재해(災害)로 인식되어 두고 두고 계속되어 내려온 것으로 보인다.

산간지역의 기불외침(祈不外侵)은 총 48건이 나타나고 있다. 이 중 대다수가 악수(惡獸)에 의한 피해이다(48%). 악수(惡獸)는 일반적인 악수(惡獸)(17%)와 호(虎)(37%), 표(豹)(29%), 리(狸), 돈(豚)²⁶⁾, 룩(鹿) 등의 짐승이름이 등장하며 뱀에 의한 피해도 표현되고 있다(10%). 특히 (I-35)는 산돼지, 사슴, 호표 등 온갖 종류의 야생동물로 인해 입는 피해가 심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특별히 한황(旱荒), 수화풍우폭박(水火風雨暴雹)으로 고생하는 경우가 있다. 한황(旱荒)은 (I-34)에서, 폭박(暴雹)은 (I-21)에서 보이는데 이처럼 축문(祝文)내용 중에 우박으로 인해 농사에 피해가 컸음을 적어 놓은 예는 흔치 않다고 할 것이다. 해충(害蟲)으로 인한 피해는 보편적인 ‘해충소진(害蟲消盡)’(I-22)외에 명충과 박각시나방의 애벌레인 명등(螟騰)(I-39)이라 하여 농작물을 해치는 벌레의 이름을 들고 있다. 또 도적(盜賊)의 경우는 충북-충남지역에는 (I-40)의 한 가지 예 뿐이나 경기-강원지역은 강원의 (I-2)와 경기지역 다수의 예가 있다. 경기지역에는 아무래도 빈부의 격차가 컸던 까닭에 이런 예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겠다. 귀신(鬼神)은 이매(魍魎)(I-39)라 하여 도깨비를 일컫는 예가 있는데 왜 특별히 도깨비가 등장했는지 알 수가 없다. 그러나 이 지역이 도깨비, 호표, 해충 등에 의한 외침이 심했던 지역이며 산제 외에 천제·장승제를 지내고 있다는 사실만이 파악된다. 이외에 (I-18)의 병화(兵火), (I-34)의 병란(兵亂)이 특이하다.

관재불침(官災不侵)은 말 그대로 관아와 연결되어 발생한 재해를 막아주십사하는 경우이다. 이것은 인재에 해당된다. 관재(官災)는 특히 구설수(口舌數)에 오르지 말아야 한다는 관재구설(官災口舌)이 대부분이다. 마을민이 경외시하던 부분 중의 하나였고 이것은 지금도 관재수 운운하며 기피하는 것으로도 나타난다. 이외에 마을에 송사(訟事)가 없기를 바라는 내용도 있다.(I-18, 촌무쟁송(寸無爭訟))

재앙소멸(災殃消滅)의 경우는 50건인데 이 중 질병원축(疾病遠逐)·소멸(消滅)(38%), 재앙구축(災殃驅逐)·소멸(消滅)(28%)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질병(疾病)은 일반적으로 질병(疾病)이라 표현되기도 하고 구체적인 질병명(疾病名)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기원분류	내용	등장횟수	備考
辟邪	祈不外侵	48	합 107
	官災不侵	9	
	災殃消滅	50	
求福	祈 豐 饒	28	합 164
	家畜繁殖	25	
	동네平安	61	
	所願成就	48	
	其 他	2	

26) 산돼지는 (I-21),(I-35)에 나타난다.

기호지역의 疾病은 여병(癘病), 여역(癘疫), 역병(疫病), 두진(痘疹)이 63%를 차지하고 있다. 지역적으로는 경기-강원지역이 타 지역보다 질병의 예가 훨씬 많다(63%). 특히 강원도 조사지역중 삼척군, 명주군은 수인성전염병(水因性傳染病) 다발성지구(多發性地區) 12개지역 194,759명 중 약40%를 차지하는 등 질병에 있어서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²⁷⁾ 그래서 질병에 대한 예방의 차원에서 신령께 ‘방지(防止)케 하여주옵소서’하는 경우도 있다. 충북-충남지역에도 ‘동민 병마방지 우마계건 병마방지’(I-25)등 예방의 예가 많이 보인다. 즉 질병원측(疾病遠逐)·소멸(消滅)은 병마에 대해 질병과 고난을 몰아내고(I-34), ‘무해부명으로 지내게 해달라(I-6)’고 기원하는 것이다. 한편 재앙은 대부분 경기-강원지역이 구체적인 재앙소멸(災殃消滅)의 내용을 담고 있는 반면 충북-충남지역은 보편적인 재해(災害)의 소제(消除)를 기원하고 있다. 경기-강원지역에서는 ‘옥천불갈(玉泉不渴)(I-8)’‘수한재소(水旱災消)(I-12)’‘풍한서습(風寒暑濕)(I-20)’이라 하여 수재(水災)·한재(旱災)·태풍(颱風)·혹한(酷寒)·혹서(酷暑) 등을 소멸해 주십사 기원하고 있다. 이것은 식수(食水)나 농수(農水) 등 농경사회의 풍흉여부(豐凶與否)를 결정하는 자연조건과 관련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이다. 대부분 자연재해로 인한 ‘재앙을 멸해주십사’하는 바램을 담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백요(百妖), 천사(千邪), 만액(萬厄)과 ‘지역면액 월액일액시액을 소명소제’(I-42)하여 제반 액뎀을 소거(消去)해 줄 것을 신에게 기원하는 것이다.

(나) 구복(求福)

구복(求福)은 생업(生業)은 풍요(豐饒)와 가축(家畜)의 번성(繁盛) 그리고 소원하는 바의 성취(成就)로 마을이 평안(平安)하고 가가호호(家家戶戶) 안락(安樂)한 생활(生活)을 영위(營爲)할 수 있기를 기원(祈願)하는 내용이다. 기풍요(祈豐饒), 가축번성(家畜繁盛), 소원성취(所願成就), 동네평안과 무고(無告)로 표현한다.

기풍요(祈豐饒)는 ‘천감토비(泉甘土肥)(I-20)’하여 서직도맥(黍稷稻麥)(I-18)(I-19)’을 춘경추색(春耕秋穡)하면 시세(時歲)는 화평하고 농사는 대풍(大豐)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다. 기풍요(祈豐饒) 28건 중 포괄적인 내용인 ‘오곡풍등(五穀豐登)’(57%)이 제일 많아 이것이 기풍요(祈豐饒)의 기반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가정에서는 농사에 힘쓰며(I-27, 가가무농(家家務農)) 풍수해없는 대풍을 이루기 위하여 때 맞춰 비가 내리고(I-28), 샘물이 솟아 넘치기(I-41)를 신에게 기원한다.

농촌에서 기르는 가축은 소, 말, 돼지, 닭, 개 등이다. 특히 소나 말의 경우는 농사짓는데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노동의 수단이다. 그러므로 농사의 풍양(豐穰)을 위해서 소, 말의 번성을 기원한다. 가축번식(家畜繁殖)은 25건인데 이중 육축번식(六畜繁殖)이 64%이며 가축과 더불어 민물(民物), 축재(畜財)가 모두 번성하길 기원하는 경우가 4건 있다. 이외에 우마(牛馬)(I-15), 계견(鷄犬)(I-20), 계구(鷄狗), 우양(牛羊)(I-37)처럼 특별한 가축의 이름을 드는 경우가 있다.

소원성취(所願成就)는 마을민의 간절한 소망을 성취코자 하는 경우이다. 대부분 ‘백복길사(百福吉事)’로 나타나는데 소원성취(所願成就) 총 48건 중 42%를 차지한다. (I-42)에는 ‘무자유자 무손자유손 병차험차신수농수재수대통’이라 하여 마을민의 최대 소원인 농사풍등, 재물풍성, 자손번창, 건강 등을 지향하는 사고방식이 스며들어 있다. 또 ‘초치

27) 강원도청 1975, 앞의 책, 858쪽

地 區	춘성	홍천	횡성	원성	평창	영월	삼척	철원	화천	인제	명주	양양	계
人口數	7,123	1,620	3,549	6,148	3,569	22,739	39,163	1,835	5,080	2,978	36,643	4,312	194,759

가상(招致嘉祥)'의 경우도 14건 있는데, 덕(德)이나 혜택(惠澤), 수복(壽福), 혼열(欣悅) 등 만사(萬事)가 화개(花開)했다고 표현된다. 특히 (I-38)에는 년년히 마을민 모두가 남산(南山)만치 장수(長壽)하고, 고준한 능묘(陵墓)만큼 복이 있어 남녀노소 모두가 기뻐할 수 있기를 빌고 있다.²⁸⁾ 이외에도 신(神)이 보우(保佑)하사 백성들에게 덕과 혜택을 내려 주고²⁹⁾ 풍요롭고 살기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하여 사승(邪崇)한 것을 제거해 주길 바란다. 이것은 기불외침(祈不外侵)이나 재앙소멸(災殃消滅)과 일맥상통하는 예로 한서(旱暵)와 풍재(風災)의 소멸(消滅), 평균적인 강우(降雨), 질병(疾病)의 소멸(消滅) 등과 더불어 나타난다. 이러한 소원성취(所願成就)가 이루어지면 동네는 평안하고 국가는 번영한다고 했는데 동네의 풍속과 기강이 흐트러짐이 없이 돈독하여 이웃간의 화목과 동네의 무사(無事)함을 기원하는 것에는 마을 공동체적인 의식이 잘 표현되어 있다고 하겠다.

동네평안과 무고(無告)는 61건인데 가가호호의 안락(安樂)과 평안(平安)이 41%로 제일 많고 그 다음이 마을민의 보존과 번영(33%) 그리고 '일리강길(一里康吉)'함과 '일동무사(一洞無事)'함이 있다. 이것은 동네평안을 구축하기 위하여 개인, 가정, 이웃, 동네의 모든 화합과 안락을 기원하고 있음을 보여준다.³⁰⁾ 이외에 등산(登山)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무사(無事)를 기원하는 내용(I-29)과 '하습동강 시서예악 임진신영(夏習冬講 詩書禮樂 任進身榮)(I-18)'라고 하여 항상 시서예악을 열심히 공부하여 입신양명(立身揚名)하기를 바라는 내용도 있다. 후자의 경우 제도권 내에 들어가고자 하는 바람이 실려있는 특이한 내용이다. 이것은 산간지역 42개지역 중 유일한 예로 포천군 군내면의 지역적 특수성이 가미된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에서 축문기원(祝文祈願)내용인 벽사(辟邪)와 구복(求福)에는 모름지기 자기 당대는 물론 후손에게까지 회구하는 모든 바가 이루어지기를 절실히 바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총 164건의 구복(求福)내용 중 기풍요(祈豐饒) 28건(17%), 가축번식(家畜繁殖) 25건(15%), 동네평안과 무고(無告) 61(37%), 소원성취(所願成就) 48건(29%), 기타 2건(1%)으로 구성되어 있다. 벽사(辟邪)는 총 107건 중 기불외침(祈不外侵) 48건(45%), 관재불침(官災不侵) 9건(8%), 재앙소멸 50건(47%)이다. 이로 미루어 볼 때 구복이 내용이 수치상으로 보면 많기는 하지만 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것은 벽사라 할 수 있으며 그래서 오히려 더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동네평안의 수치가 가장 높고 재앙소멸-기불외침-소원성취의 순으로 나타나 우리 민족은 힘든 여건속에서도 희망과 소원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알 수 있다.

3.3 제수(祭需)

제수(祭需)는 동제(洞祭)를 지내는데 필요한 물품과 음식을 의미한다. 각 마을의 동제는 (I-27)에서처럼 '錦繡之下 人間育村 洞口巨木 大江之上 人物彬彬 上元即望 盡心極誠 擇地良辰 焚香再拜(금수지하 인간육촌 동구거목 대강지상 인물彬彬 상원즉망 진심극성 택지량진 분향재배)'를 하면서 시작한다. 축문은 송신(頌神)과 기원(祈願)을 행한 후 제

28) (I-38)에 '歲歲年年 壽如南山 福如高陵 男欣如悅'로 표현되어 있다.

29) (I-24)에 '惟神之賜 使飽而暖 惟神之佑 導民之德 加民惠澤'이라 하고, (I-27)에 '神其報佑 人民無頃 俾無後艱'하길 바란다고도 하였다.

30) (I-40)의 '老小安寧 子孫昌盛 病者以寧 愚者以樂'과 '人人平康 家家和樂(I-19)' 그리고 '四隣泰平 里富興(I-17)'이 그 예이다.

수(祭需)를 논하고 흠향(歆饗)하면 끝난다. 제사는 우선 좋은 날에 ‘근이생폐(謹以牲幣)’와 ‘근이청작(謹以清酌)’으로 물부(物溲)하여도 성의를 다해(I-37) 지내야 하는데 제수의 기본은 주과포해(酒果脯醢)(I-29)이다.

희생(犧牲)은 견뢰(堅牢), 저(猪), 계(鷄)를 주로 쓴다. 특히 소와 돼지의 경우 머리를 이용하는데 이것은 (I-6),(I-16)에서처럼 온 ‘주민이 정성껏 머리를 사다 정성을 드리오니’와 ‘근이생두(謹以牲頭)’라는 데서도 나타난다. 그외에 소병(素屏), 과(果), 메, 미(米) 등을 준비한다. 술은 청주(淸酒)나 춘주(春酒)³¹⁾라 하여 특별히 명한 것 외에는 ‘근이청작(謹以清酌)’으로 일반화되어 나타난다. 희생은 뿔감을 이용해 준비한 후 메와 술 등과 함께 향기로운 대나무뿔자리에 놓고 제사지낸다고 한다.³²⁾ 이렇듯 뿔감을 이용해 음식을 만든다고 하여 특별히 그 예를 드러낸 것은 (I-31)의 ‘예재자성(醴齋粢盛)’과 ‘근공자성(謹供粢盛)’이다.

이렇게 준비된 생비주향(牲肥酒香)한 제물들은 제신들이 취포희준(醉飽犧樽)(I-10)하도록 영단(靈壇)(I-15)에 진설(珍說)되었다. 또 축문을 지어 올려 제향드림을 고한 예도 보인다.(I-10, 공축치고(工祝致告)) 이와 같이 준비된 제수(祭需)는 제신이 흠향하고 난 후 마을민이 음복함으로써 끝난다. 흠향(歆饗)은 흠향(歆饗), 서기흠격(庶幾歆格), 기천우신(祇薦于神) 등으로 끝맺는다.

산간지역의 동제에 나타난 제의명칭³³⁾은 산신제 혹은 산제가 16건으로 제일 많고 그 다음이 산제사·산지사이다. 이 모두를 산신제(山神祭)의 동류(同類)로 본다면 42건중 28건(46%)이 해당된다. 워낙 산간지역을 위주로 조사지역을 선정하였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지역별로 보면 강원도는 성황제(城隍祭)가, 경기도는 산제사(山祭祀)가, 충북-충남은 산신제(山神祭)·산제(山祭)가 우위를 차지한다. 그리고 축문명(祝文名)이 있는 경우가 15건³⁴⁾인데 산제류(山祭類)가 8, 성황제류(城隍祭類)가 2, 그외 천제(天祭), 정제(井祭), 상당제류(上堂祭類)가 있다.

4. 산간지역(山間地域) 동제축문(洞祭祝文)의 의미(意味)

4.1 『백례축집(百禮祝輯)』에 나타난 축문(祝文)

31) 모두 좋은 술이란 뜻으로 別稱해 놓은 것이다.

32) (I-32)에서 ‘答誠粢米玄酒玉粒香筵’으로 신께 제공되어진다.

33) 山間地域 洞祭 名稱

제의명	강원도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계
성황제	6		1		7
당고사	1		1		2
치성제	1				1
산(신)제	1	2	6	7	16
산제(지)사		8	1	1	10
산치성		2			2
동 제			1		1
동고사			2		2
기 타	1(서낭굿)				1
계	10	12	12	8	42

34) 城隍堂祝, 天祭堂祝, 上堂祭祀祝辭, 城隍祭祝文, 滿村洞山祭祀祝, 井祭祝, 山祭祀, 山神祝, 洞山祭祝文, 里社祭祝文, 소암산제축, 山祀祝, 山神祭祝文, 山祭祀祝文式 등이 있다.

『백례축집(百禮祝輯)』은 (I-24)지역 조사시 축문이 수록되어 있던 책이다. 이천종씨(1928년생)가 축문책을 보관하고 있다가 동제(洞祭)날 ‘이사제축문(里社祭祝文)’과 ‘동산제축문(洞山祭祝文)’을 베껴서 사용했다고 한다. 그러나 한문을 읽을 줄 모르는 사람이 제주(祭主)가 되면 독축(讀祝)하는데 아니라 젓상위에 그냥 펴놓은 것으로 대신했으며 조사를 실시한 1992년에는 아예 독축(讀祝)을 생략하였다고 한다.³⁵⁾ 이것으로 미루어 보아 이전까지는 이른바 ‘구학문(舊學問)’³⁶⁾을 하신 분들이 계셔서 활용되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이 『백례축집(百禮祝輯)』은 이름 그대로 여러 가지 의례에서 사용되는 축문(祝文)과 서식(書式)을 모아놓은 책이다. 서문(序文)에 보면 유산(裕山) 연안(延安) 이환익(李桓翼)이 증보(增補)하고 치재(恥齋) 완산(完山) 이덕하(李德夏)가 교열(校閱)하였다고 되어 있다. 신연활자본(新鉛活字本)으로 총 65장(張)이며 ‘세재갑진추구월삭(歲在甲辰秋九月朔)’(1904년) 서문(序文)을 쓴 뒤 1929년 옥천(沃川)에서 서우석(徐雨錫)이 발간하였다.

『백례축집(百禮祝輯)』에 의하면 축문은 신(神)에게 고(告)하는 예(禮)³⁷⁾로 상례(常禮)의 경우는 고경(古經)에서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있지만 외사(外祀)는 정해진 바가 없어 선현(先賢)들의 글에서 찾아야 된다고 하였다. 그래서 고(告)하는 것과 축(祝)하는 것 모두를 통칭(通稱) 축(祝)이라 하며³⁸⁾ 예(禮)에 절(節)이 많이 있는 것처럼 축(祝)에는 많은 문(文)이 보인다고 한다. 그러나 축문이 이책저책에 산재(散在)되어 있기 때문에 구하기가 매우 힘들지만 여러 의례(儀禮)에 사용되는 고축(告祝)을 모으고 서식(書式)과 그 의례(儀禮)를 여기에 합해 책을 만들었는데, 이것은 의례(儀禮)를 행함에 있어 간결하고 그것이 널리 쓰이기를 바라는데 있다고 하였다.³⁹⁾ 이 책에 인용된 동현(東賢)들의 축문(祝文)은 이언적(李彦迪)의 『晦齋集(회재집)』, 김장생(金長生)의 『沙溪集(사계집)』과 『疑禮問解(의례문해)』, 『喪禮備要(상례비요)』 그리고 이재(李穡)의 『陶庵集(도암집)』, 『四禮便覽(사례편람)』에서 이환익(李桓翼) 자신의 『裕山祝輯(유산축집)』에 이르기까지 약 45권의 책을 참조해 총괄적으로 모아 놓은 것이다. 이것을 보면 축문은 당시 유학자들과 밀접한 연관이 있었다고 하겠다.

『백례축집(百禮祝輯)』의 목록은 상례편(喪禮篇)에 초종(初終)-치장(治裝)-우제(虞祭)-졸곡(卒哭)-부제(附祭)-小祥(소상)-對象(대상)-담제(禫祭)-길제(吉祭)-체천(遞遷)-매규(埋圭)-개장(改葬)-반장(返葬)과 제례편(祭禮篇)에 기제(忌祭)-묘제(墓祭)-수기(修基)-고묘(告廟)-외사(外祀)-서식(書式)으로 되어 있다. 특히 동제(洞祭)와 연관이 있는 외사(外祀)는 12종으로 그 명칭은 (J)와 같다.

- J-1. 가토지축문(家土址祝文)
- J-2. 조신제축문(竈神祭祝文)
- J-3. 리사제축문(里社祭祝文)

35) 文化財管理局 文化財研究員, 1993, 앞의 책, 186쪽

36) 漢學을 하신 분을 일컫는다.

37) 李桓翼·李德夏, 1929, 『百禮祝輯』 서문 祝所以告神 明以成之也

38) 李桓翼·李德夏, 1929, 앞의 책
有告有祝 總稱皆祝也

39) 李桓翼·李德夏, 1929, 앞의 책
禮之多節而祝之多文可見矣. 然其辭散在諸書 臨時考求豈不艱哉… 及取諸禮 告祝合成一冊 附以書式及儀…其志動其事簡而其用博矣

- J-4. 동산제축문(洞山祭祝文)
- J-5. 제산기우축문(祭山祈雨祝文)
- J-6. 제대천기우축문(祭大川祈雨祝文)
- J-7. 제룡연기우축문(祭龍淵祈雨祝文)
- J-8. 제전조기우축문(祭田祖祈雨祝文)
- J-9. 수토리기우축문(守土吏祈雨祝文)
- J-10. 제전조멸황축문(祭田祖滅蝗祝文)
- J-11. 제산신구제산돈축문(祭山神驅除山豚祝文)
- J-12. 제해신축문(祭海神祝文)

(J-1)은 울곡(栗谷) 이이(李珣)의 경우 집 북쪽 깨끗한 곳에 단(檀)을 쌓아놓고 지낸다고 했으며 사계(沙溪) 김장생(金長生)은 묘제(墓祭) 때 토지신(土地神)에게 올리는 것이라고 한 예로 보아 가례(家禮)의 일종으로 파악된다. (J-2)는 조왕신에게 올리는 축문으로 가신신앙의 일종인 안택고사가 행해질 때 남자들에 의해 읽혀지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일문강길(一門康吉)’이라 하였다. (J-3)의 ‘일리강길(一里康吉)’과 대조적이다. (J-3)은 삼척지역에서는 각 마을마다 설치되어 ‘神明(神明)을 공경(恭敬)하고 향리(鄉里)의 화목(和睦)을 꾀하고 풍속(風俗)을 두터이 했다’고 하였는데 여기서는 ‘일리강길(一里康吉) 백곡풍양(百穀豐穰)’을 내세워 마을의 토지지신(土地之神)과 관련되어 나타낸 것으로 추측된다.⁴⁰⁾ (J-4)는 마을에 거주하는 마을민 중 유학자(儒學者)를 뽑아 토지지신(土地之神)께 올리는 제사로 ‘유신지우(惟神之佑) 도민지덕(導民之德) 가민혜택(加民惠澤)’이라 하여 일반 마을민들이 ‘등따습고 배블러’ 살기좋은 마을이 되게끔 신(神)이 힘써 주기를 바라는 내용이다. 그러면 마을민은 이에 보은(報恩)하여 희생(犧牲)과 좋은 술로 제사를 지낸다는 것이다. 항골마을에서 사용하는 축문은 (J-3)과 (J-4)로 각각 술재(述齋) 김종수(金宗洙)가 지은 『술재축집(述齋祝輯)』과 유산(裕山) 이환익(李桓翼)이 지은 『유산축집(裕山祝輯)』에 수록된 것이다.

(J-5)에서 (J-9)까지는 산(山)·대천(大川)·용연(龍淵)·전조(田祖)·토지(土地) 등에 지내는 기우제(祈雨祭) 축문(祝文)이다. 기우제는 조선시대 유학자들의 문집에도 종종 등장하는데 『용재총화(慵齋叢話)』 권(卷)7에 보면 기우제를 지내는 절차가 수록되어 있다. 오부(五部)·종묘사직제향(宗廟辭職祭享)·사대문제향(四大門祭享)·오방룡제(五方龍祭)와 제자도(梯子島)의 용제(龍祭)·박연(朴淵)·양진(楊津) 등에 호두(虎頭)던지기, 창덕궁후원(昌德宮後苑)·경회루(慶會樓)·모화관(慕華館) 연못가에서 도마뱀을 물동이에 넣고 두들기기, 남문(南門)을 닫고 북문(北門)을 열기 등이 나열되어 있다.⁴¹⁾ (J)의 기우제 축문들은 주산지신(主山之神)·대천(大川)(大江)之神·용연지신(龍淵之神)·전조지신(田祖之神)·토지지신(土地之神) 등에 비를 내려 해갈시켜주십사⁴²⁾하며 제향을 올릴 때 사용함을 알 수 있다.

(J-10)은 전조지신(田祖之神)이나 토지지신(土地之神)에게 화병(禾病)을 일으키는 충류(蟲類)인 명(螟)과 황(蝗), 모(蝥), 적(蠃)을 일시에 소제하여 곡식을 무럭무럭 자라게 하여 백성이 배블리 먹고 보존하기를 치성으로 기원한다는 내용이다. 주로 해충(害蟲)의

40) 『省齊集』 卷40 柯下散筆 長潭里社土地祭文의 예도 있다.

41) 민족문화추진회, 1989, 고전국역총서 『대동야승1』 용재총화 제7권, 174쪽

42) (J-7)에 ‘矧茲歲早 民憂方切 衆情嗷嗷 杲杲火日 禾黍皆枯 溝澮且竭 辛加惠澤 注下滂做 潤我庶物 日就滋長’이라 되어 있다.

피해를 많이 입던 지역에서 사용하던 것으로 보인다.⁴³⁾ (J-11)은 마을민들이 토지를 개간해 모맥두숙저류(牟麥豆菽藷類)등을 기르면 산돼지들이 무리를 지어 마을로 내려와 곡식의 뿌리와 싹을 갇아 먹으니 토지지신(土地之神)이 이를 도와 멀리 쫓아 피해를 줄여주심사하는 내용이다. (J-12)는 봉사(奉使)·유학(遊學)·유람(遊覽)·상가(商賈)들이 필요에 따라 변통해 쓴다고 한다. 주로 대해지신(大海之神)에게 올린다. 신이 도와 ‘제치악리(制置鱉螭) 순복교경(馴伏蛟鯨)’하여 풍파를 잠재우고 뱃길이 열려 모든 뱃일이 순조롭기를 바라는 내용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동제축문(洞祭祝文)의 경우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한 축문안에 제신(祭神)·송신(頌神)·기원(祈願)의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고 벽사(辟邪)·구복(求福)의 내용속에 여러 가지 회구(希求)와 소망(所望)하는 바를 몇가지씩 적어놓은 반면 『백례축집(百禮祝輯)』의 축문은 적재적소(適材適所)에 맞는 축문을 골라 쓸 수 있도록 『주자가례(朱子家禮)』가 일반화된 것으로 파악되는 『사례편람(四禮便覽)』의 예까지 포함하여 정리해 놓았다. 그 결과 축문(祝文)이 분야별(分野別)로 정리되어 있어 전문성을 보인다고 하겠다. 이것으로 축문을 짓거나 읽는 유학자들이 그 마을의 동제 때에도 축문을 짓고 읽었으리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로써 동제축문(洞祭祝文)은 그 마을의 소망(所望)을 유학(儒學)을 공부한 자의 글로 문서화(文書化)시킨 예라 할 수 있겠다. 이것은 마을곳처럼 무격들에 의해 축언으로만 끝나지 않고 굳이 축문을 짓고 격식을 따라 잔을 올리고 절하며 신에게 고한 것은 동제에서만 나타나는 마을 공동체 합일화의 상징성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4.2 축문제작자(祝文製作者)의 성향(性向)

산간지역(山間地域) 총 42건의 축문(祝文)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거의가 유교가례(儒敎家禮)의 축식(祝式)을 형식상 답습하고 있다. 이것으로 미루어 보아 동제축문(洞祭祝文)은 형식상 유가(儒家) 예서축문(禮書祝文)에 준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⁴⁴⁾ 그래서 축문은 유가에서 교육받은 사람이 지었다고 추정해 볼 수가 있는 것이다. 동제축문의 제작자는 각 마을마다 달랐고, 신위의 성격, 동네의 상황등에 맞도록 축문을 제작하였다. 동제축문의 제관으로는 ‘유학모(幼學某)’가 보편적인데 이 유학(幼學)은 유교적(儒敎的) 교육(敎育)을 받은 사람에게 붙여진 명칭으로 동제축문에 나타난 초헌관(初獻官)은 거의가 유자(儒者)이고⁴⁵⁾ 제의시 축문도 초헌관이 독축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동제축문(洞祭祝文) 양식(樣式)이 유가제례축문(儒家祭禮祝文) 양식(樣式)과 같고 그 독축자나 제관이 유자(儒者)나 유학자(儒學者)가 다수였었다고 하여 동제가 유자들에 의해 주도되었던 것은 아니다. 마을공동제의의 주체는 엄연히 마을주민 모두였다. 그것은 동제라는 큰 범주안에서 파악되어야 한다. 즉 조선시대 이전부터 면면히 이어져 내려온 동제⁴⁶⁾의 기원 내용이나 그 속에 담고 있는 의미는 별반 변한 바가 없으나 형식은 사회·문화적 변화속에서 사회질서의 차원으로 승화된 성리학적 지배체제속으로 유입되어 갔다. 그래서 그 유가제례축문 양식을 잘 알고 있던 유학자(儒學者)들이 동제

43) (I-39)지역에 蝮螭이 있다.

44) 崔承洵 1986, 앞의 논문, 65~66쪽

45) 崔承洵, 1976, 洞祭祝文의 形式考, 『韓國民俗學』 9, 민속학회, 59~62쪽

46) 부여의 영고, 고구려의 동맹 등 감사제나 기원제의 형식을 띄고 있는 고유의 제의는 공동체속에서 형성된 것

축문의 형식을 잡아 주었던 것이라 하겠다. 즉 이전에는 축언(祝言)이나 소지(燒紙)을릴 때 바램을 읊조리는 형태로 있었던 것이 조선시대에 이르러 축문이 형식화된 것으로 추측된다. 특히 서두-말미식 형식은 『주자가례(朱子家禮)』 이후 『사례편람(四禮便覽)』이 보편화 될 정도로 통용이 되고 난 후에야 전국적인 공통형식으로 등장한 것이다.⁴⁷⁾ 그 결과 유자(幼者)는 축문을 형식상 동제의 과정속에 삽입시켰고 마을민들은 실제적인 기원을 위해 삽입시켰을 것이다. 이것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동제의 제관이나 축문형식 등에서 알 수 있다.

(I-41)의 경우 산제축문(山祭祝文)외에 제향(祭享)의 식순(式順), 홀기(笏記) 등이 남아 전해지고 있다. 또 유학자(儒學者)들이 제향(祭享) 때 ‘홀(笏)을 든다’하여 술잎을 홀(笏)처럼 들고 제의(祭儀)를 진행한다. 이것은 (I-31)의 경우도 비슷한데, 죽령산신제(竹嶺山神祭) 축문(祝文)외에 식제홀기(式祭笏記)가 전하고 있다. 그러나 죽령산신제(竹嶺山神祭)의 경우는 대관령산신제(大關嶺山神祭)처럼 관(官)과의 밀접한 유관성을 보여준다. 축문 서두에 ‘국왕(國王) 근견신(謹遣臣) 000치고우(致告于)’라 되어 있다. 이는 죽령산신제(竹嶺山神祭)가 지금도 군수(郡守)가 직접 제의에 참석하며 군(郡) 행정기관(行政機關)에서 제의기금(祭儀基金)을 보조하고 있는 것으로도 알 수 있다.⁴⁸⁾ 그외 대부분의 조사지역은 마을민 중에서 제관을 선출하고 있다.

산간지역 동제(洞祭)의 제의형식(祭儀形式)은 1.주민 중 제관을 선출하는 경우 2.마을 대표자(이장, 새마을지도자, 노인회장 등)가 주관하는 경우 3.무(巫)가 주관하는 경우 4.신대를 잡아 제주를 선정하는 경우 5.동네의 최고령자를 선정하는 경우 6.개인적으로 하는 경우 7.농악대에서 하는 경우 8.기타 다른 지역(절 등)에서 하는 경우가 있다.⁴⁹⁾ 대부분 1,2,3 중에서 한 경우에 해당된다. 축문이 남아있는 42개지역 제관의 대부분은 이장과 축관 그리고 도가 정도였다. 축관이 축문을 소지하고 있었는데 대부분 연배가 60~70대 노인이었다. 이 분들은 생기복덕을 볼 줄 알아 날택이도 겸하고 있었다. 축문의 제작자명이 명백한 것은 (I-24)의 이환익과 (I-2)의 송포(松浦)이다. 그 외에는 옛날부터 전해내려 오던 것이라던가 (I-33)처럼 동계책(洞契冊)에 적혀 있는대로 쓴다던가 하였다.

축문은 형식이 서두-말미식과는 상관없이 후대로 내려오면서 여러 가지 여건상 변화를 겪게 된다. 즉 대부분의 지역은 한자(漢字)가 틀리거나 알아보지 못할 정도의 글자로 변한다거나 하여도 송체(頌體)형식의 한자사구(漢字四句)로 구성되어 있다.(사진 1) 그러나 (I-29)(I-30)(I-40)의 경우는 형식이나 송체사구(頌體四句) 모두 그대로이지만 한자를 한글로 적어 놓았다.(사진 2) 이것은 한자 옆에 한글로 토를 달아 놓은 것(사진 3)과는 확연히 다른 것이다. 즉 ‘敢昭告于 城隍之神...’을 ‘감소고우 성황지신...’이라 한 것이다. 이 경우는 이제는 오직 축문 내용이 지닌 뜻이 무엇인지 여부보다는 축문을 읽는다는 하나의 형식으로만 전락해 버린 예이다. 이런 경우는 조만간 축문자체가 없어지지나 않을까 우려되었다. 왜냐하면 축문 본래의 의미를 상실했기 때문이다.

현재 산간지역 총 56개 지역 중 축문이 있는 지역은 42개 지역이다. 한문식(漢文式) 축문(祝文)이 한글과 잘 혼합되어 있는 경우가 (I-34)의 경우다. 이 지역은 산신제축문

47) 表仁柱, 1989, 앞의 논문, 22~23쪽

48) 文化財管理局 文化財研究所, 1993, 앞의 책, 386쪽

충남 당진군 면천면 성상리(동문밖마을)설문조사에 의하면 이 지역도 군수가 제관이 되고 행정기관에서 제의 비용을 부담한다고 한다.

49) 文化財管理局 文化財研究所, 1993, 앞의 책, 367~387쪽 설문지조사내용 참조

을 한문으로 써 놓은 예전의 것과 그것을 한글로 풀어 놓은 요즈음의 것 2개가 있다.(사진 4) 그래서 예전의 한문식축문이 한글식축문과 더불어 잘 조화되어 이해되고 있다. 한문식축문이 완전히 이해되어 한글식축문으로 된 예는 (I-6)이다. 이곳은 한문식축문이 완전히 소멸되고 한글식고축(告祝)만이 남아 있다. 이것이 오히려 한글음으로 된 한문식축문보다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이것으로 미루어 보아 축문은 그 형식과 내용에서 마을민의 시간적·공간적 시대상이 투영되어 나온다고 할 수 있겠다.

5. 맺음말

희생(犧牲)과 제주(祭酒)를 준비하여 신(神)에게 오곡풍양(五穀豐穰)과 가정안락(家庭安樂)을 기원하는 축문(祝文)은 내용상 제신(祭神)-송신(頌神)-기원(祈願)-제수(祭需)의 기본요소를 담고 있다. 경기·강원·충북·충남의 산간지역 축문 42건을 단계별로 분석하여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제신(祭神) : 조사지역의 신위명은 대부분 단수(單數)이며 00산신(山神)이 33.3%를 차지한다. 경기-강원 지역은 성황지신(城隍之神)이, 충북-충남지역은 00산신(山神)이 우세하게 나타난다. 이외에 강원도 명주군 일대의 여역지신(癘疫之神)과 삼척군의 서낭단 오곳의 단군대왕(檀君大王)이 특이하다.

2. 송신(頌神) : 정결한 장소, 알맞는 시간 그리고 근신(謹慎)하는 마음으로 신(神)에게 기원하기까지의 준비과정을 서술한 것이다.

3. 기원(祈願) : 축문의 본문구성 중 핵심되는 부분이다. 벽사(辟邪)와 구복(求福)으로 나눌 수 있다. 벽사(辟邪)에는 기불외침(祈不外侵), 관재불침(官災不侵), 재앙소멸(災殃消滅)이, 구복(求福)에는 기풍요(祈豐饒), 가축번식(家畜繁殖), 동네평안(平安), 소원성취(所願成就)가 주 내용으로 등장한다. 기불외침(祈不外侵)은 대다수가 호표(虎豹)에 의한 피해와 해충(害蟲), 도적(盜賊), 이매(魑魅) 등에 의한 피해를 보여준다. 관재불침(官災不侵)은 관재구설(官災口舌)이 대부분이다. 마을민이 경외시하던 부분 중의 하나였다. 재앙소멸(災殃消滅)은 질병원축(疾病遠逐)과 재앙구축(災殃驅逐)이 66%를 차지한다. 질병(疾病)에는 여(癘), 역(疫) 두(痘), 진(疹)이 63%이다. 재앙(災殃)은 수재(水災), 한재(旱災), 태풍(颱風), 혹한(酷寒), 혹서(酷暑) 등으로 농경사회의 풍흉(豐凶)결정요소인 자연조건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기풍요(祈豐饒)는 시세(時歲)가 화평하고 농사는 대풍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다. 오곡풍등(五穀豐登)이 57%로 제일 많아 그 기반을 이룬다. 가축번식(家畜繁殖)은 소나 말이 농사를 짓는데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노동수단인 관계로 소, 말의 번성을 기원하는 것이다. 육축번식(六畜繁殖)이 64%를 차지한다. 소원성취(所願成就)는 백복길사(百福吉事)가 42%를 차지한다. 해마다 마을민 모두가 남산(南山)만치 장수(長壽)하고 고준한 농묘만큼 복(福)이 있어 남녀노소(男女老少) 모두가 기뻐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 동네평안은 가가호호(家家戶戶)의 안락(安樂)과 평안이 41%로 제일 많고 마을민의 보존과 번영, 일리강길(一里康吉)함과 일동무사(一洞無事)함이 있다. 이것은 동네평안을 구축(構築)하기 위하여 개인, 가정, 이웃, 동네의 모든 화합과 안락을 기원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래서 구복(求福)내용 164건중 동네평안이 37%로 제일 많고, 벽사(辟邪)는 총 107건중 재앙소멸(災殃消滅)이 47%로 제일 많다.

4. 제수(祭需) : 동제(洞祭)를 지내는데 필요한 물품과 음식을 의미한다. 제수(祭需)의

기본은 주과포해(酒果脯醢)이고 희생은 견뢰(犬牢)·저(猪)·계(鷄)를 주로 쓴다. 쌀감을 이용해 준비한 희생은 메, 술 등과 함께 향기로운 대나무뚝자리에 진설한 후 제사를 지낸다고 한다.

이러한 산간지역 동제의 제의명칭(祭儀名稱)으로는 산신제(山神祭)·산제(山祭)·산제사(山祭祀)·산지사 등 산신제류(山神祭類)가 46%에 해당된다. 역시 산간지역을 조사지역으로 선정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강원도(江原道)는 성황제(城隍祭)가, 경기도(京畿道)는 산제사(山祭祀)가, 충북-충남은 산(山)(신(神))제(祭)가 우위를 차지한다. 축문명(祝文名)이 있는 축문은 15건인데 역시 산제류(山祭類)가 8건, 성황제류(城隍祭類)가 2건 그외 천제(天祭), 정제(井祭), 상당제류(上堂祭類)가 있다.

이러한 축문은 형식상 유교가례(儒敎家禮)의 축식(祝式)을 답습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유교(儒敎)에서 교육을 받은 유학(幼學)이 지었다고 추정해 볼 수가 있다. 이들은 각 마을마다 신위의 성격, 동네의 사회적·자연적 환경등에 맞는 축문을 제작하였음을 축문 속에 나타난 기원의 내용을 통해 살펴 보았다. 축문에는 그 형식과 내용에 마을과 마을민의 역사상이 투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이와 같은 축문은 지역별 연구현황이 전남지역을 제외하고는 미비한 관계로 앞으로 전국적인 조사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나아가 조선시대 혹은 더 거슬러 올라가 고려이전까지의 문헌 속에 나타난 축문과 제문을 수집, 분석하여 이 둘을 연결시켜 비교연구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축문의 양식과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이렇게 된다면 지배층의 문화와 서민층의 문화 사이의 문화혼합이나 문화전이 등이 파악되어 우리나라 문화양상의 일면을 살펴 볼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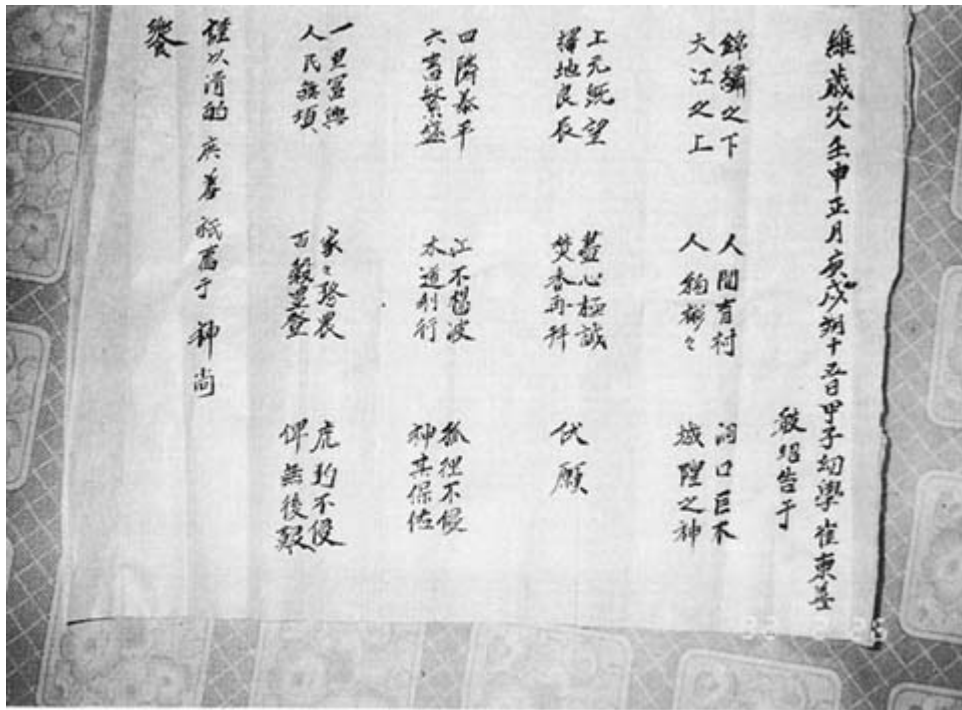


사진 1. 頌體四句式 祝文(충북 제천군 청풍면 도화리)

사진 1. 송체사구식 축문(頌體四句式 祝文)(충북 제천군 청풍면 도화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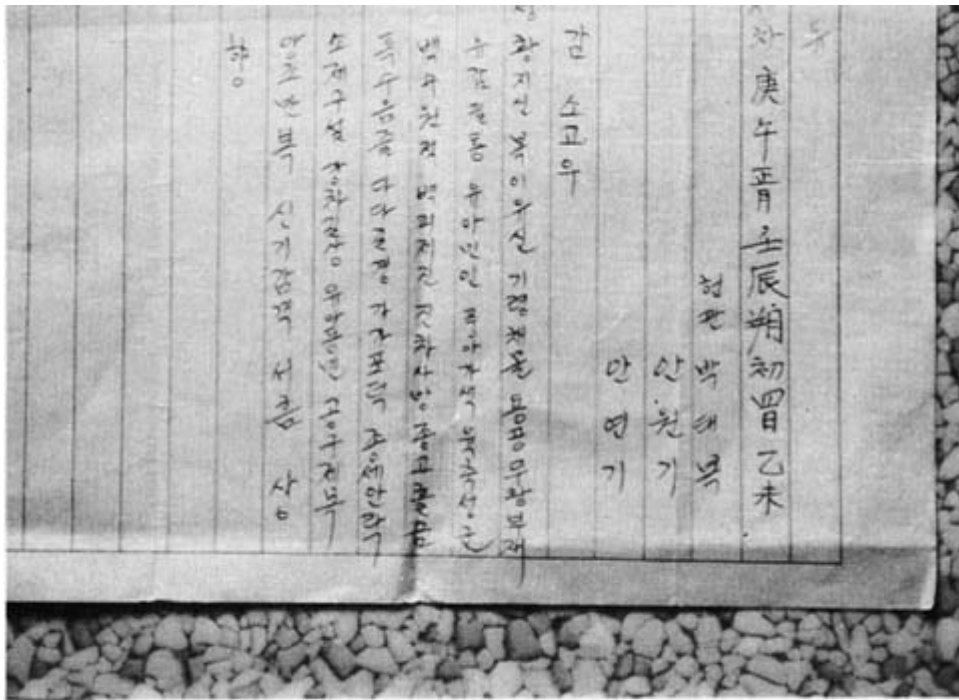


사진 2 한글음으로 된 漢文式祝文(충북 단양군 가곡면 향산리)
 사진 2. 한글음으로 된 漢文式祝文(漢文式祝文)(충북 단양군 가곡면 향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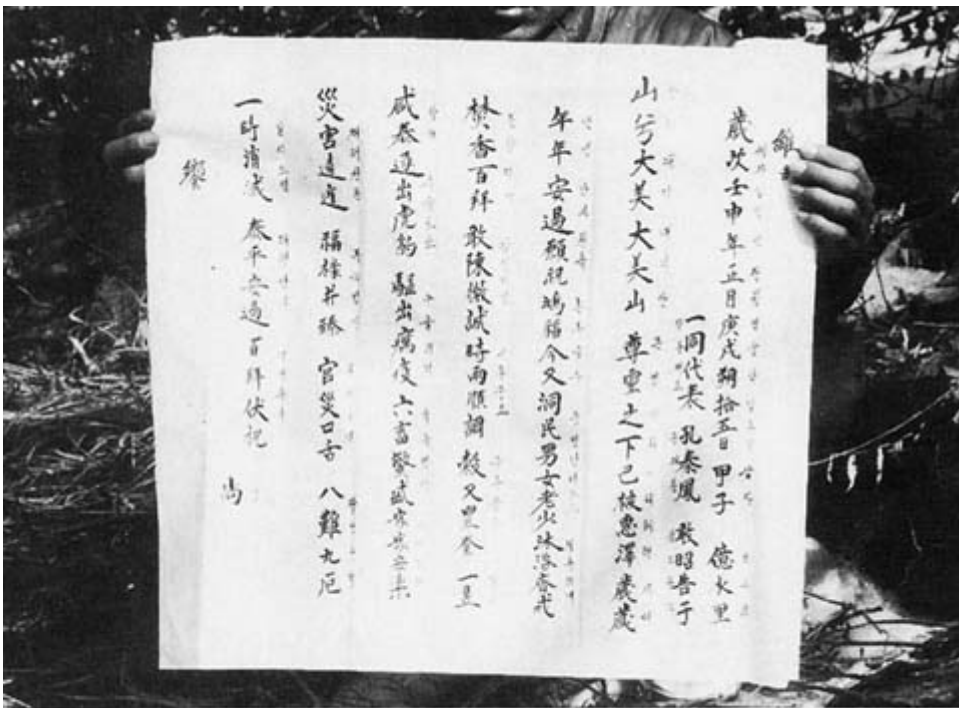


사진 3 漢文式祝文에 한글토를 단 祝文(충북 제천군 덕산면 억수리)
 사진 3. 漢文式祝文(漢文式祝文)에 한글토를 단 祝文(祝文)(충북 제천군 덕산면 억수리)



사진 4. 한글식과 漢文式을 함께 사용한 祝文(충북 음성군 생극면 생리3구)

사진 4. 한글식과 漢文式(漢文式)을 함께 사용한 祝文(祝文)(충북 음성군 생극면 생리3구)